

# 강원 영서 중·북부 방언 연구의 현황과 과제

Current Status and Future Tasks of Research on Dialects in Central and Northern Yeongseo, Gangwon-do

박정모\*

**국문요약** 강원 지역의 방언 연구는 성조가 뚜렷한 영동 지역에 편중되었으며, 춘천·화천·인제·양구·철원을 포함한 영서 중·북부 지역은 학술적 관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 이 지역 방언은 경기 방언의 하위 부류라는 통념과 달리 음운과 어휘 층위에서 독자적인 변이 양상을 보이는 전이지대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현재의 연구 성과는 8,90년대의 개별조사와 최근 국립국어원의 보고서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급격한 언어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 성과가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초고령화와 지역 소멸 위기로 인해 토박이 화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생동감이 있는 방언형의 채록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대두된다. 향후 단순 행정구역 단위를 넘어 자연지리와 생활권에 기반한 '마을'과 골짜기 단위의 정밀한 미시적 현지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방법론적으로는 과거 녹취 자료의 부재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 문헌과 지역성을 담은 영상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 거점 대학이 중심이 되어 강원 지역어에 대한 방언학적 관심과 연구의 인적 토대를 강화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강원 영서 중·북부 방언에 대한 조사는 지금까지 미비한 연구 성과를 보완하고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핵심어** 강원 영서 중·북부 방언, 방언 연구 현황, 방언 분화, 전이지역, 방언 조사와 보존

- 차례**
1. 서론
  2. 강원 영서 중·북부 방언의 특징
  3. 강원 영서 중·북부 방언 연구 현황
  4. 향후 연구 과제 및 결론

비해 특별한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며, 1960년대 말부터 강원 방언에 관한 조사와 연구가 시행되기 시작했으나 현재까지도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나마 강원 영동 방언은 강릉 지역어를 중심으로 활발히 연구가 되어 강원 방언 연구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다. 김옥영의 연구에서는 강릉 지역어의 활발한 연구는 함경도 및 경상도의 전이지역이라는 점과 여러 방언권에 둘러싸였다는 점, 영서 방언보다 중앙어와의 차이가 크다는 점, 강릉 출신 연구자가 많다는 점을 언급했다.<sup>1</sup>

## 1. 서론

한국어 방언에 관한 연구사를 살펴보면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와 고노 로쿠로(河野六郎) 연구 이래로 많은 국어 학자들이 여러 지역의 방언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연구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강원도 방언은 다른 지역 방언에

반면 영서 방언 특히 영서 중·북부 방언(춘천, 화천, 인제, 양구, 철원)에 관한 연구는 과거 선행 연구 몇몇을 제외하곤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12년 전 연구인 김옥영의 논

1 김옥영, 「강원도 지역어 연구사」, 『국어국문학』 166, 국어국문학회, 2014, 44쪽.

의에서 '강릉' > 삼척 > 양양 > 평창 · 정선 · 원주 > 고성 > 영월 > 홍천 > 춘천 > 인제 > 횡성 > 화천 · 철원 · 양구'의 양상으로 지역 방언을 주제로 한 선행 연구량이 나타남을 언급한다. 이후 김수영의 연구에서도 큰 차이가 없다. 10여 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 두 연구에서 영서 방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변화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 즉, 영서 중 · 북부 지역에 관한 연구와 조사는 변함 없이 연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인은 대중들이나 연구자들이나 강원 방언에 관한 인식 자체가 영동 방언으로 연결된다는 것이 첫 번째 원인이다. 대중매체에서 나타나는 강원 방언의 모습은 영동 방언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에 따라 대중들은 영동 방언의 표현을 익숙하게 생각하여 강원 방언을 영동 방언으로 인식한다. 오히려 강원 영서 지역에서는 강원 방언을 쓰지 않는다는 인식하기도 한다. 연구자들도 성조 방언인 영동 방언의 두드러진 점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연구하다 보니 이러한 영동과 영서 간의 방언 관련 연구량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원으로는 강원 영서 방언은 중부 방언, 경기 방언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내용들로 방언 관련 선행 연구들이 다뤄져 왔기 때문에 일종의 고정관념이 형성된 점도 고려할 수 있다. 비록 통사적인 부분 등에서는 경기 방언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영서 방언 관련 선행 연구에서도 언급한다. 하지만 음운, 형태, 어휘 등에서는 분명 차이가 있음을 말하지만, 영서 방언에 관한 관심은 고정관념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글에서는 강원 영서 지역의 방언 중에서도 특히나 선행 연구량이 미미한 강원 영서 중 · 북부 방언의 특징과 연구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향후 영서 중 · 북부 방언과 관련된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강원 영서 중 · 북부 방언에 관한 정보와 내용을 파악하고 낮은 연구량으로 인한 문제점을 짚어 향후 강원 영서 중 · 북부 방언의 연구와 관련 조사 진행에

도움이 될 것이다.

## 2. 강원 영서 중 · 북부 방언의 특징



〈그림 1〉 강원특별자치도의 행정구역 지도

일반적으로 강원 지역의 언어는 자연지리적 특성에 따라 태백산맥 서쪽을 영서 지역, 태백산맥 내부와 동쪽을 영동 지역으로 구분한다. 선행 연구들에서 분류한 영서 지역은 행정구역 기준으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춘천, 홍성, 횡성 원주가 구성하고 있다. 영서 지역 방언은 분명 고유한 특징을 지니고 있지만 위치상 근접한 경기 방언과도 비슷한 언어적 특징이 있다.

김봉국의 연구에 따르면 에 따르면 영서 방언은 음운, 문법, 어휘 등에서 두드러진 점을 보인다. 특히 경기 방언과 영동 방언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더 드러난다. 영서 방언을 사용하는 노년층의 음운 특징으로는 10개의 단모음 (1,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을 가지고 있으며 19개의 자음 (ㄱ, ㅋ, ㆁ, ㄷ, ㅌ, ㄴ, ㄹ, ㅈ, ㅊ,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이 확인된다.<sup>2</sup> 또한 영동 방언과 영서 방언, 경기 방언과 영

2 김봉국, 『강원의 사투리: 영서지역』, 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 2022, 20쪽. 장년층과 청소년층은 모음에서 'ㄱ', 'ㄴ'을 이중모음으로 발음하기도 하며 'ㄱ'과 'ㄴ'의 구별조차도 점점 없어져 간다.

서 방언을 음운적 특징인 모음축약, 음운 교체, 음운 탈락, 자음군 단순화를 기준으로 비교하여 방언별 차이를 나타낸다.<sup>3</sup>

문법적 특징 역시 언급하며 ‘나무’와 조사가 결합한 형태의 용례와 동사의 ㄷ 불규칙 활용의 용례를 제시한다.<sup>4</sup> 이러한 용례를 살펴보면 영동 방언과 영서 방언은 분명히 차이점이 두드러지지만, 경기 방언과 영서 방언을 비교하면 영서 방언이 영동 방언보다 경기 방언과 더 가깝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김봉국의 연구에서 더 언급하듯이 경기 지역과 인접한 영서 지역 중에서 나타나는 비원순모음화 현상 등을 본다면 경기 방언과 영서 방언도 차이가 분명하므로 강원 지역 방언으로 볼 수 있는 기준이 형성된다고 말한다.<sup>5</sup>

하지만 김봉국의 연구에서는 강원 영서 방언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다루며 위와 같이 영서 방언의 특징을 정리했다. 하지만 이를 강원 영서 중·북부 지역 방언의 특징으로 까지 일반화할 수 없다. 자연지리·인문지리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요인들로 인해 강원 영서 지역 내에서도 특징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언어 현상들이 있기 때문이다.

노명희의 연구에서는 강원 방언의 경우 강원 지역 전역에서 나타나는 공통 특징보다 내부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언어 현상이 많다는 내용을 전제로 강원 영서 지역의 화천, 춘천, 홍천, 원주, 횡성, 평창 6개의 시군에서 12개의 읍면을 선정하여 현지 조사한 내용을 결과로 해당 지역의 방언 특성을 살펴보았다. 조사 지역의 용례를 비교

분석하니 음운 현상은 이중모음의 단모음화, 움라우트, 구개음화, 자음군 단순화, 어중자음의 개입 여부가 기준이 되어 분화되는 것을 확인하고 강원 영서 지역 내의 방언 분화 가능성을 정리했다. 지역별 방언형 용례를 살펴보니 평창 지역의 방언형은 영동 방언의 특성이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을 지니고 있어 다른 지역과 분화되는 양상을 보이거나 영서 방언과 영동 방언의 전이 지역적 특성을 보였다. 특히 어중의 ㅅ은 평창을 비롯해 원주, 횡성의 경우에도 <표 1>과 같이 ㅅ 유지형을 보이기 때문에 영서 남부 방언의 분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표 1> 마을간다

화천	춘천	홍천	원주	횡성	평창
마을간다 (사내면)	마을간다 (신북읍)	마을간다 (동면)	밤마실간다 (문막읍)	밤마실 (갑천면)	마실간다 (용평면)
마을간다 (상서면)	마을간다 (남산면)	마실간다 (서면)	밤마실간다 (부론면)	마실간다 (공근면)	마실간다 (봉평면)

<표 1>은 표준어 ‘마을간다’에 대응하는 조사 지역별 방언형 용례이다. 홍천군 서면과 홍천 이남의 지역인 횡성과 원주, 그리고 그 인접 지역인 평창에서는 ‘ㅅ’이 유지되는 ‘마실’이 나타난다. <표 1>의 방언형 출현 양상을 본다면 홍천을 기준으로 방언이 분화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몇몇 방언형의 경우는 영서 북부 방언의 분화 가능성과 원주와 횡성 지역어의 분화 가능성을 <표 2>와 <표 3>과 같이 보여주기도 한다.

<표 2> 극쟁이

화천	춘천	홍천	원주	횡성	평창
홀치 (사내면)	걸계질쟁기 (신북읍)	걸기채 (동면)	극쟁이 (문막읍)	극쟁이 (갑천면)	보그레 (용평면)
연장 (상서면)	연장 (남산면)	걸구채 (서면)	공개 (부론면)	극쟁이/연장 (공근면)	혹쟁이 (봉평면)

3 위의 책, 24쪽. 모음축약의 경우 ‘마시+어 → 마셔’(영서/경기) / ‘마시+어 → 마세’(영동) 등의 용례로 음운 교체의 경우 ‘산+이 → 산이’(영서) / ‘산+이 → 사ᄃ+이’ 등, 음운 탈락의 경우 ‘늣+는다 → 늣는다’(영서) / ‘늣+는다 → 늣는다’(영동) 등의 용례를 제시한다.

4 위의 책, 25~26쪽. ‘나무가, 나무를, 나무에, 나무도, 나무만’(영서), ‘남기, 남글, 남게, 나무도, 나무만’(영동), ‘남기, 남글, 남기, 나무도’(옛말)와 ‘걷는다, 걷고, 걸어’(영서) → ‘걸는다, 걸고[걸꼬], 걸어’(영동).

5 위의 책, 27쪽. 비원순모음화의 용례로 ‘빌(빛이, 빌을, 빌에), 끝(꽃이, 끝을, 끝에)’(영서) / ‘빚~빚, 꽃~꽃(경기)과 함께 ‘밭(밭이, 밭을, 밭에), 숲(숲이, 숲을, 숲에)’(영서), ‘밭~밭~밭, 숲~숲, 숲’(경기)’를 제시한다.

〈표 3〉 솔가리

화천	춘천	홍천	원주	횡성	평창
가리나무 (사내면)	솔검불 (신북읍)	솔검불 (동면)	솔가루 (문막읍)	솔개피 (갑천면)	갈비 (용평면)
솔검불 (상서면)	솔잎 (남산면)	솔잎 (서면)	솔잎 (부론면)	솔가루/솔검불 (공근면)	갈비 (봉평면)

〈표 2〉와 〈표 3〉과 같이 ‘극쟁이’와 ‘솔가리’에 대응하는 방언형의 보편 화천의 ‘홀치’와 횡성의 ‘솔개피’가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화천의 ‘홀치’와 평창의 ‘보그래’인데 평창의 경우 상기한 것처럼 영동 방언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화천의 ‘홀치’의 경우 춘천의 ‘겉계질쟁기’, 홍천의 ‘겉기채, 겉구채’와는 다른 어형이 나타난 것이다. 인접 지역인 춘천과도 차이가 나는 어형이 나타난 것을 본다면 이는 영서 북부 방언의 분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용례라 할 수 있다.

영서 남부 방언에서도 원주와 횡성의 분화 가능성을 살필 수 있다. 〈표 3〉의 용례에서 원주의 ‘솔잎’과 횡성의 ‘솔개피’는 ‘솔가루’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분화되는 양상을 나타낸다. 이로써 확인할 수 있는 점은 같은 강원 영서 지역이라 하더라도 방언형 어휘가 세부적으로 분화가 된다는 점과 행정구역상 인접 지역이라 하더라도 방언형의 차이가 뚜렷함을 알 수 있다. 아래 〈표 4〉는 국립국어원 지역어 종합 정보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지역어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언형을 영서 중·북부 지역의 춘천(중부), 화천, 인제, 양구, 철원(북부)의 용례와 인접 지역인 경기도 가평과 홍천의 용례를 정리한 것이다.<sup>6</sup>

〈표 4〉 영서 중·북부 방언 5개 지역과 인접 지역의 방언형 용례

표준어	춘천	가평	홍천	화천	인제	양구	철원
가위	가이 가새	가위 가새	가새	가위	가이 가새	가이	가새
딸꾹질	딸꾹지	딸꾹질 폐기	딸각이	딸꾹질	딸꾹지	깎뜨기	딸꾹질
따리	따리	따리	따리	뚜아리	따리	뚜아리 또바리	뚜아리
벌레	벌레	벌레 벌리지	벌거지	벌레	벌리지	벌레	벌레
키	치	키 치	치	키	치	치	키
헛바늘	셋바늘	헛바늘	셋바늘	셋바늘	셋바늘	셋바늘	셋바늘
꾸러미	꾸리	줄	꾸러미	꾸러미	꾸레미 줄	꾸림	두름

〈표 4〉의 내용은 표준어 ‘가위, 딸꾹질, 따리, 벌레, 키, 헛바늘, 꾸러미’에 대응하는 영서 중·북부 5개 지역과 인접 지역의 홍천과 가평의 방언형의 용례를 정리한 것이다. ‘가위’에 대응하는 방언형들은 지역별로 ‘ㅅ’의 개입 여부로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춘천과 가평, 홍천, 인제, 철원의 경우 ‘ㅅ’이 유지되며 화천과 양구는 ‘ㅅ’이 탈락한 형태를 보인다. ‘딸꾹질’에 대응하는 방언형은 가평의 ‘폐기’를 제외하고는 ‘딸까-’의 형을 유지하고 있지만 특이하게도 양구의 경우 도치로 보이는 ‘깎뜨기’가 나타난다. 또한 ‘따리’의 대응하는 방언형에서도 양구는 ‘ㅂ’이 개입하는 ‘뚜바리, 또바리’가 나타난다. 이러한 용례를 봤을 때 영서 중·북부 5개 지역에서도 양구 지역은 좀 더 특이한 방언형이 추출될 수 있겠다는 예상을 할 수 있다.<sup>7</sup> ‘벌레’에 대응하는 방언형은 인제의 ‘벌리지’가 특징적이며 ‘키’와 ‘헛바늘’의 경우 지역마다 구개음화와 원순모음화가 진행된 형태와 그렇지 않은 형태가 골고루 나타난다. 끝으로 표준어 ‘꾸러미’의 경우 국립국어원 지역어 지도에서 모두 각기 다른 방언형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체적으로 ‘꾸-’로 시작되는 어형들이지만 인제의 ‘줄’과 철원의 ‘두름’은 특이점이라 할 수 있다.

6 경기도 가평은 경기도에서 가장 동쪽에 있는 지역으로 남으로 홍천, 동쪽으로 춘천, 북쪽으로 경기도 포천과 경기도 화천과 양구를 접하고 있다, 강원도 홍천의 경우 경기도 가평과 양평, 강원도 춘천, 양구, 인제를 모두 접하는 한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지니는 행정구역이다. 이에 방언과 인접 지역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가평과 홍천의 용례도 함께 포함시켰다.

7 양구의 경우 사면팔방이 막힌 편치불 지형과 같은 특징도 있다는 점에서 방언 연구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지 기대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노명희의 연구 결과와 더불어 <표 6>과 같이 방언형의 출현 양상을 정리하면 강원 영서 중·북부 지역 방언의 경우 일반적으로 방언학에서 다뤄 온 인접 지역과의 영향, 그리고 전이지대의 성격과 특징을 가지면서도 인접 지역과는 다른 세부적으로 방언형의 분화 양상이 두드러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양구의 ‘뚜바리, 또바리’, 인제의 ‘벌리지’ 그리고 표준어 ‘꾸러미’에 대응하는 방언형 모두를 본다면 각 지역만의 특징적인 방언형도 존재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강원 방언 특히 영서 방언의 경우 행정 구역상의 영서 지역 방언을 모두 통틀어 일반적인 특징을 논할 수도 있겠지만 영서 지역의 북부·중부·남부와 같은 세부 지역의 방언 분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영서 방언을 살펴볼 필요도 있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 강원 영서 중·북부 방언 지역의 방언 연구를 진행할 때 충분히 고려해야 할 지역적·언어적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3. 강원 영서 중·북부 방언 연구 현황

강원 영서 중·북부(춘천, 화천, 인제, 양구, 철원) 방언의 연구 현황을 살펴보고 해당 지역의 방언 연구의 필요성을 논하고자 한다. 김수영의 연구에서 제시된 강원도 지역별 방언 연구 건수 현황에 따르면 다음 <표 5>와 같다.<sup>8</sup>

<표 5> 강원 영서 중·북부 지역 방언 연구 건수 현황

지역	(권/편)수	지역	(권/편)수
춘천	5	양구	2
인제	4	철원	2
화천	3		

하지만 논문과 저서, 연구 보고서 등의 구분을 확인할

8 김수영, 「강원도 방언 연구의 성과와 전망」, 『방언학』 38, 한국방언학회, 2023, 7쪽, 10쪽.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사이트 등에서 ‘강원(도) 방언’, ‘영동 방언’, ‘영서 방언’ 및 각 하위 지역어를 검색어로 활용하여 자료를 검색하고 김옥영(2014)의 논의를 참고하여 보충한다고 밝혔다.

수 없어 국회전자도서관과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를 교차 검색하여 새롭게 파악하고 분류하고자 한다. 아래의 <표 6>은 지역과 총 연구 건수, 연구 유형(학술논문, 학위논문, 단행본, 보고서) 세 가지 기준으로 선행 연구 건수를 집계한 것이다.<sup>9</sup>

<표 6> 강원 영서 중·북부 지역 방언 관련 연구 건수

지역	연구 건수	연구 유형			
		학술논문	학위논문	단행본	보고서
춘천	8	4	-	1	3
화천	6	4	-	1	1
인제	6	2	1	1	2
양구	4	2	-	1	1
철원	4	2	-	1	1

<표 6>에 해당하는 선행 연구의 목록을 다음 <표 7>과 같이 제시한다.<sup>10</sup>

<표 7> 강원 영서 중·북부 지역 방언 관련 선행 연구 목록

지역	연구 유형	연구 제목
춘천	학술논문	원훈의, 「강원도 방언연구:춘천·춘성군 방언의 어휘를 중심으로」, 『관동향토문화연구』 제7집, 춘천교육대학 관동향토문화연구소, 1989, 29~47쪽.
		이상복, 「방언부문」, 『강원문화연구』 제9집,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1989, 133~156쪽.
	원훈의, 「강원도 방언연구 6-2:춘천·춘성군 방언의 음운을 중심으로」, 『논문집』 제31집, 춘천교육대학, 1991, 31~55쪽.	
	노명희, 「강원도 영서 지역의 언어분화: 화천, 춘천, 홍천, 원주, 횡성, 평창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제69집, 한국국어교육학회, 2005, 149~190쪽.	
	학위논문	-
	단행본	남기탁·손주일·한길·최윤현 편저, 『방언』, 국학자료원, 2002.
	보고서	국립국어원, 「2017년 지역어 보완 조사사업 보고서」, 국립국어원, 2017. 국립국어원, 「2021년 세대별·지역별 언어 다양성 조사」, 국립국어원, 2021. 국립국어원, 「2022년 세대별·지역별 언어 다양성 조사」, 국립국어원, 2022.

9 국회전자도서관과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각 지역별 방언, 지역어, 사투리 등을 검색한 결과를 집계한 것이다. 단행본, 학위논문 등 영서 중·북부 지역 모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선행 연구도 건수에 포함시켰다. 다만 단행본의 경우 중부 방언이나 강원 방언 전반의 내용을 다룬 단행본들도 있었지만 이 글에서는 직접적으로 지역의 방언 또는 지역어를 나타낸 단행본을 집계한 것이다.

10 시지와 군지와 같은 향토지(郷土誌)에 수록된 지역 방언의 기술 내용은 제외하였다.

화천	학술논문	전성탁, 「화천지방의 방언연구」, 『논문집』 제23집, 춘천교육대학, 1983, 67~86쪽. 원훈의, 「강원도 방언연구(7-1): 화천군 방언의 어휘를 중심으로」, 『관동향토문화연구』 제9집, 춘천교육대학, 1991, 57~58쪽. 원훈의, 「강원도 방언연구: 화천군 방언의 음운을 중심으로」, 『관동향토문화연구』 제10집, 춘천교육대학 관동향토문화연구소, 1992, 45~75쪽. 노명희, 「강원도 영서 지역의 언어 분화: 화천, 춘천, 홍천, 원주, 횡성, 평창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제69집, 한국국어교육학회, 2005, 149~190쪽.
	학위논문	-
	단행본	남기탁·손주일·한길·최윤현 편저, 『방언』, 국학자료원, 2002.
	보고서	국립국어원, 「2015년 국립국어원 지역어 조사 사업 보고서」, 국립국어원, 2015.
인제	학술논문	전성탁, 「인제지방의 방언연구」, 『관동향토문화연구』 제5집, 춘천교육대학 관동향토문화연구소, 1987, 55~83쪽. 전성탁, 「인제지방의 방언연구」, 『논문집』 제28집, 춘천교육대학, 1988, 53~81쪽. 강원대 국어국문학과, 「강원도 인제군 학술답사 보고서」, 『강원문화연구』 제9집,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1989, 157~223쪽.
	학위논문	김유겸, 「인제 지역어의 음운론: 방언 접촉 현상과 관련하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2.
	단행본	남기탁·손주일·한길·최윤현 편저, 『방언』, 국학자료원, 2002.
	보고서	국립국어원, 「2009년 국립국어원 지역어 조사 사업 보고서」, 국립국어원, 2009.
양구	학술논문	전성탁, 「양구지방의 방언연구」, 『관동향토문화연구』 제6집, 춘천교육대학 관동향토문화연구소, 1988, 53~86쪽. 이장송 외, 「휴전선 일대 고립 지역의 언어 양상에 관한 연구: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일대를 중심으로」, 『한국커뮤니케이션학』 제3집,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1995, 247~271쪽.
	학위논문	-
	단행본	남기탁·손주일·한길·최윤현 편저, 『방언』, 국학자료원, 2002.
철원	보고서	국립국어원, 「2018년 국립국어원 지역어 조사 사업 보고서」, 국립국어원, 2018.
	학술논문	전성탁, 「철원지방 방언 연구」, 『논문집』 제22집, 춘천교육대학, 1982, 77~98쪽. 이상복, 「방언부분」, 강원대 강원문화연구소, 『강원문화연구』 제8집, 1988, 213~234쪽.
	학위논문	-
	단행본	남기탁·손주일·한길·최윤현 편저, 『방언』, 국학자료원, 2002.
	보고서	국립국어원, 「2015년 국립국어원 지역어 조사 사업 보고서」, 국립국어원, 2015.

〈표 6〉의 수치로는 〈표 5〉의 내용보다는 강원 영서 중·북부 연구 현황이 파악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동 방언이나 다른 지역 방언의 연구량에 비하면 현저히 적은 연구 건수이다. 그나마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된 국립국어원에서 지역어 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지역어 조사 보고서와 세대별 지역어 조사 보고서가 최근의 연구이다. 대다수 1980년대 말 지역의 대학 소재의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 성과다.<sup>11</sup> 학위논문의 경우 인제 지역어의 음운론을 다룬 석사학위논문이 있고 그 외 지역과 관련된 학위논문은 전혀 없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학술논문의 경우 1980년대 말에 주로 나왔던 선행 연구와 단행본의 경우 2000년대 초에 간행된 것 그리고 국립국어원 지역어 조사 사업에서 발간된 지역어 조사 보고서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지금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2~30년 동안 다른 지역 방언에 비해 관심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무관심 속에서 걱정되는 점들이 여럿 있다.

첫 번째로 현재 지역민들의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방언형의 보존에 관한 문제이다. 여러 방언학 개론서나 방언 관련 연구 자료에서는 언어의 생동성과 우리말의 역사를 파악할 수 있고 각 지역 특유의 생활상을 '방언'이 반영하고 있다고 말한다. 비록 최근에 국립국어원 주도의 지역어 조사가 진행되긴 했으나 2장에서 언급했듯이 강원 영서 중·북부 지역의 방언은 세부 지역별로 분화된 방언형들이 추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민들이 가지고 있는 토속성 짙은 방언형들이 보존되고 전승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염려가 든다.

두 번째로 해당 지역의 다양한 방언 연구 관련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것에 관한 문제이다.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강원 영서 중·북부 지역과 관련된 선행 연구 중 국립국어원의 지역어 조사 보고서를 제외하고는 1980년 한국정

11 춘천교육대학교의 원훈의, 전성탁 교수와 그들의 연구팀이 진행한 방언 조사와 방언 연구이다.

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발간한 『한국방언 조사질문지』를 활용해 진행한 방언 조사의 내용을 토대로 하는 것이다. 현재는 국립국어원에서 간행한 『지역어 조사 질문지』라는 방언 조사 때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더 생겼다. 또한 기존 선행 연구와 관련된 방언 조사의 데이터 또는 음성, 녹취 자료 등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 이는 당시 현장에서의 방언형을 파악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후대의 연구자들에게 전해지지 않는다는 안타까움이 있다.

세 번째로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선행 연구 진행 당시의 녹취, 구술 자료 등의 자료가 전해지지 않는 것과 연관되어 현재에도 지역 고유의 방언형을 추출하기 위한 제보자 확보에 문제가 있다. 점차 지역 고유의 토속성이 짙은 방언형을 구사하는 화자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강원 영서 중·북부 지역 중 군 지역은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 소멸이라는 지역 현안이 발생할 정도이다. 또한 초고령화 인구 구조를 가지고는 있으나 토박이 화자는 점차 줄어드는 상황이다. 지역 방언의 관념이 아닌 지역어의 관념에서 접근하더라도 세대별·연령별 불균형이 심한 지역이기에 방언·지역어 관련 연구에 적합한 제보자를 확보하는 방안 또는 구술 및 녹취 자료 등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강원 영서 방언에 관한 고정관념을 벗어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방언학 관련 연구 및 저서에서 음성, 음운, 어휘 등의 두드러진 차이점이 나타나는 구획을 기준으로 방언구획이나 방언권을 설정한다. 문제는 그 두드러진 차이점을 파악하는 부분에서 순수하게 언어학적인 접근이 아닌 방언 조사의 실질적인 여건과 언어 외적 여건 등의 요인으로 인해 강원 영서 중·북부 지역은 제대로 방언형 파악이 되지 않은 것 같은 의심이 있다. 예를 들어 음운, 형태, 통사, 어휘 등 경남 방언의 경우 부산, 마산, 진주 지역 방언이 각기 다르고, 경북 방언의 경우도 대구, 경주, 안동, 구미 지역 방언이 다 다르다. 이렇게 경상 방언권 내에서는 각기 다른 지역 방언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

다. 그렇다면 강원 영서 지역 방언의 경우에도 분화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비록 예시로 든 경상 방언권만큼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충분히 방언의 분화 가능성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방언 조사와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 방언, 중부 방언의 일부라는 오히려 스테레오 타입을 형성한 것으로 생각한다.<sup>12</sup>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언어 내·외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강원 영서 중·북부 방언에 보존과 관심이 필요하며 더욱 확장하여 관련 연구가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sup>13</sup>

#### 4. 향후 연구 과제 및 결론

이 글의 2장에서는 강원 영서 중·북부 지역 방언은 지역별로 고유한 특징을 가진 방언형들이 나타나고 인접 지역이라도 분화되는 양상이 다양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강원 영서 중·북부 지역 방언 지역의 연구 성과의 양이 미비하다는 점과 일정 시기에만 활발히 만들어지고 최근에는 국립국어원의 지역어 조사 사업의 결과물만이 있다는 점과 따라서 방언 관련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관련된 향후 연구 과제 중 가장 최우선으로 수행해야 할 점은 해당 지역의 방언 조사의 실시이다. 비록 최근 국립국어원의 지역어 조사 보고서가 있긴 하지만 국립국어원 주도의 지역어 조사는 각 지역당 1개 지점만을 조사하여 파악한 방언형을 담았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노명희의

<sup>12</sup> 과거 교통망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현재보다 많이 떨어졌을 것이며, 인구가 밀집되어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제보자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또한 강원 영서 중·북부 지역의 경우 군사 지역이며 휴전선이 있는 접경지역이기에 과거에는 자유로운 방언 조사 활동이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접근성이나 방언 조사 시행 환경이 많이 좋아진 지금이라도 방언 조사 및 연구는 진행되어야 한다.

<sup>13</sup> 적어도 강릉을 중심으로 하는 강원 영동 방언 관련 연구 성과의 절반이라도 확보해야 강원 영서 중·북부 지역 방언의 고유한 특징, 방언형, 관련 언어 현상 등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에서 각 행정 구역당 2개 지점을 조사하여 용례를 밝혀 같은 군 단위 내에서도 다른 방언형이 나타난 것을 확인했던 것과 표 4의 용례 역시 조사 지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게 해준다. 따라서 앞으로 강원 영서 중·북부 지역의 방언을 조사하고 연구해야 한다면 적어도 국립국어원에서 진행한 방언 조사 지점 외에 복수의 조사 지점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방언 조사 지점을 설정할 때 단순히 지도 상에 인접 지역이라 동일 방언형 또는 유사 방언형이 파악될 것이라는 관념은 강원 영서 중·북부 지역에서만큼은 열게 지녀야 할 것이다. 과거의 선행 연구의 방언 조사가 실시될 시기에 비하면 현재는 교통망이 많이 발달했겠지만 지금도 다른 방언권 또는 지방에 비하면 도로 등 교통이 불편한 상황이다. 그래서 고립되고 토속성을 가지고 있는 언어인 방언 또는 지역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민들이 인식하는 지역의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면, 읍, 동, 리와 같은 행정구역 단위보다는 마을 단위, 골짜기 단위, 계곡 단위 등 자연지리와 인문지리, 지역민들의 생활권 측면에서 접근하여 방언 조사 지점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방언 조사 진행과 방언 자료 확보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상기했듯이 1980년대에 주로 진행한 강원 영서 중·북부 지역의 방언 연구는 방언 조사를 진행할 때 『한국방언조사질문지』를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최근 국립국어원의 지역어 조사는 국립국어원이 발간한 『지역어 조사 질문지』를 활용한 것이다. 『한국방언조사질문지』가 『지역어 조사 질문지』의 구성과 내용에 참고가 되었을 것이지만 『지역어 조사 질문지』에는 구술 담화를 추출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따라서 국립국어원의 지역어 조사는 구술 발화 자료와 최근의 녹취 자료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지역에서의 자연스러운 구술 상황을 반영, 수집했다는 점이 큰 의미가 있다. 현재까지의 강원 영서 중·북부 지역 방언의 선행 연구는 이러한 점이 반영

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방언 조사 진행에서는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현재까지의 선행 연구와 관련된 녹취 자료, 구술 자료 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간접적인 방언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우선 문헌 조사의 성격으로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선행 연구에서 다뤄진 방언형들을 취합하고 음운·형태·어휘·의미 등의 기준을 지역별로 분류하여 강원 영서 중·북부 지역 방언의 특징 및 양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과거의 구술 채록 자료 등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방언 조사 과정에서는 필요할 경우 해당 지역의 지역민들이 출연하는 TV 프로그램 등의 영상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sup>14</sup> 문헌 사진 조사와 영상 콘텐츠를 활용하는 방언 보조 조사를 복합적으로 진행하여 많지 않은 선행 연구량과 방언 자료의 공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방향 측면에서는 우선, 방언 연구 중 어휘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공백이 많은 강원 영서 중·북부 방언 관련 연구는 기존 선행 연구에서 확보한 방언형 어휘와 『한국구비문학대계』와 같은 구술성과 토속성이 짙은 자료 또는 지역별 향토 문헌 자료에서 추출할 수 있는 방언형 어휘 등을 종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춘천, 화천, 양구, 인제, 철원 등 지역별 방언형을 수집하고 대표적인 방언형을 발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역별 방언의 분화 양상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자들은 물론 일반 대중들도 지역 고유의 표현에 관한 관심을 가지게 하는 가장 직관적인 것이 어휘이기 때문이다.

상기한 내용은 방언 조사와 연구를 위해서라면 마땅히 진행해야 할 내용들일 것이다. 그리고 다른 지역의 방언이

<sup>14</sup> 지상파의 지역방송이나 KBS의 〈한국인의 밥상〉, 〈6시 내 고향〉 등 지역성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지역민의 생활을 소개하는 성격의 방송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나 지역어 관련 연구에서는 시행된 내용들이다. 하지만 강원 영서 중·북부 지역에 한해서는 그마저도 현재까지 조사와 연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 글에서 강조하고 싶었다. 하지만 방언 조사와 연구의 진행이 쉬운 과정은 아니다. 또한 지역 전반적으로 방언 조사와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더더욱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로 이어지기에는 어렵다. 그렇기에 방언 조사와 연구가 진행되기 전에 우선으로 강원 영서 중·북부 지역과 해당 지역민들의 생활상, 방언과 지역어에 관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최근 인구 소멸, 지역 소멸과 같은 화두로 여러 매체를 통해 언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성과 토속성을 바탕으로 한 지역문화 전반을 보존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지역에 있는 대학이 역할을 맡아서 해야 할 것이다.

현재 강원 지역의 대학들은 지역·지역민과 상생하고 연계하는 기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조를 수행하는 방법의 하나로 지역학과 관련한 교양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학 관련 교양 교과목 중에 강원 영서 중·북부 방언이나 지역어, 더 넓게 강원 방언 전반에 관해 언급하거나 다루는 교과목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에 강원 지역에 소재한 대학 강원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한림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4개 대학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교양교육 과정에서 지역학과 관련된 교과목들을 확인했다. 확인한 교양 교과목명은 대학별로 <표 8>과 같이 나타난다.

<표 8>은 강원 영동과 영서 지역에 있는 4개의 대학에서 운영하는 교양 교과목 중 강원 지역의 지역학과 관련한 교양 교과목을 정리한 것이다.<sup>15</sup> 대학별로 강원 전반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과목과 해당 대학이 위치한 도시

와 생활권과 관련된 교과목을 구성하고 있지만 특히 국립대의 교양 교과목이 지역 친화적인 요소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 강원 지역 대학의 지역학 관련 교양 교과목

대학	교양 교과목명
강원대학교	춘천 춘천문화 그 현재와 미래, 강원도와 DMZ, 강원문화사, 강원도의 민속과 문학, 강원 지역사회와 기후변화, 빅데이터 기반 강원도 관광 산업의 이해, 외국인을 위한 춘천의 문화와 여가
	삼척 삼척문화의 이해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문화사, 문화관광과 데이터로 강원 이해하기, 강원 지역의 명소 이해, 게임과 빅데이터로 강원 이해하기, 강릉 지역의 명소 이해, 강원 지역과 문학, 문학 속의 강릉 로컬리즘과 글로컬리즘, 강릉 지역 문화유산, 강원도의 해양 문화
한림대학교	디자인안경을 쓰고 춘천 읽기, 알쓸신잡 춘천:춘천으로 인문학하기, 강원도의 역사와 문화, 지역사회와 서포터즈
가톨릭관동대학교	로컬 자원을 활용한 디지털 소통 역량 강화

강원 지역의 대학마다 세부적으로는 역사, 민속, 문화, 문학, 지역사회, 지역 특수성 6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교과목이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16</sup> 또한 수업 내용의 경우 역사, 지리, 사상, 문학, 예술, 민요, 의식주, 설화, 의례, 신앙, 축제, 문화유산 등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다. 하지만 어떤 대학에서도 교양 교과목으로 강원 지역의 방언, 지역어에 관해 다루는 경우는 찾을 수 없었다. 대학에서도 지역 방언과 지역어에 관한 관심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닌 개인 또는 집단의 문화적·역사적·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확립하는 중요한 매개체이다. 그리고 방언 또는 지역어는 특정 지역의 정체성과 지역적 소속감을 강화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강원 지역의 대학이라면 교육의 단계에서 방언과 지역어에 관한 부분도 관심을 가

15 2026년 현재 강원대학교와 강릉원주대학교가 통합 강원대학교로 출범했지만, 강원 영서권과 영동권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통합되기 전의 대학 단위로 기준을 잡아 2024학년도 교양 교과목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지역학 관련 교양 교과목을 제시하였다. 고유명사인 교과목명을 편의상 띄어쓰기를 적용하여 나타내었다.

16 강원대학교의 교양 교과목의 수업계획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언급한 것이다. 대학별 각 교과목의 세부 수업계획서는 대학별 사용자 권한에 따라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대학마다 지역학과 관련하여 유사한 교과목명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교육목표와 내용은 대동소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고 충분히 고려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방언과 지역어에 관한 교과목 개발 등을 통해 대학구성원들이 방언과 지역어에 관한 관심과 연구 의지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지역에서 대학의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노력이 모인다면 강원 영서 중·북부 지역의 방언 또는 지역어의 조사와 연구에 커다란 원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한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방언 자료의 보존과 다양한 유형의 자료 확보, 방언 조사 지점, 선행 연구 정리 및 검토 등의 측면에서 강원 영서 중·북부 지역의 방언과 지역어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다소 당연하고 거창한 내용들을 이 글에서 제시했다. 이는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한 강원 영서 중·북부 지역 방언의 조사와 연구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하게 언급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방언과 지역어에 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 앞으로 강원 영서 중·북부 지역과 방언, 지역어에 관심이 더욱 커져 관련 연구와 조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 확보와 함께 지역 방언과 지역어의 보존과 전승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및 논문

- 국립국어원, 「2009년 국립국어원 지역어 조사사업 보고서」, 국립국어원, 2009.  
 \_\_\_\_\_, 「2015년 국립국어원 지역어 조사사업 보고서」, 국립국어원, 2015.  
 \_\_\_\_\_, 「2017년 지역어 보완 조사사업 보고서」, 국립국어원, 2017.  
 \_\_\_\_\_, 「2018년 국립국어원 지역어 조사사업 보고서」, 국립국어원, 2018.  
 \_\_\_\_\_, 「2021년 세대별·지역별 언어 다양성 조사」, 국립국어원, 2021.  
 \_\_\_\_\_, 「2022년 세대별·지역별 언어 다양성 조사」, 국립국어원, 2022.  
 강원대 국어국문학과, 「강원도 인제군 학술답사 보고서」, 『강원문화연구』 9, 강원대 강원문화연구소, 1989.  
 김봉국, 「강원의 사투리: 영서지역」, 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 2022.  
 김수영, 「강원도 방언 연구의 성과와 전망」, 『방언학』 38, 한국방언학회, 2023.  
 김옥영, 「강원도 지역어 연구사」, 『국어국문학』 166, 국어국문학회, 2014.  
 김유겸, 「인제 지역어의 음운론: 방언 접촉 현상과 관련하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12.  
 남기탁·손주일·한길·최윤현 편저, 『방언』, 국학자료원, 2002.  
 노명희, 「강원도 영서 지역의 언어 분화: 화천, 춘천, 홍천, 원주, 횡성, 평창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69, 한국국어교육학회, 2005.  
 원훈의, 「강원도 방언연구: 춘천·춘성군 방언의 어휘를 중심으로」, 『관동향토문화연구』 7, 춘천교육대학 관동향토문화연구소, 1989.  
 \_\_\_\_\_, 「강원도 방언연구(7-1): 화천군 방언의 어휘를 중심으로」, 『관동향토문화연구』 9, 춘천교육대학, 1991.  
 \_\_\_\_\_, 「강원도 방언연구 6-2: 춘천·춘성군 방언의 음운을 중심으로」, 『논문집』 31, 춘천교육대학, 1991.  
 \_\_\_\_\_, 「강원도 방언연구: 화천군 방언의 음운을 중심으로」, 『관동향토문화연구』 10, 춘천교육대학 관동향토문화연구소, 1992.  
 이상복, 「방언부문」, 『강원문화연구』 8, 강원대 강원문화연구소, 1988.  
 \_\_\_\_\_, 「방언부문」, 『강원문화연구』 9, 강원대 강원문화연구소, 1989.  
 이장승 외, 「휴전선 일대 고립 지역의 언어 양상에 관한 연구: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일대를 중심으로」, 『한국커뮤니케이션학』 3,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1995.  
 전성탁, 「철원지방 방언 연구」, 『논문집』 22, 춘천교육대학, 1982.  
 \_\_\_\_\_, 「화천지방의 방언 연구」, 『논문집』 23, 춘천교육대학, 1983.  
 \_\_\_\_\_, 「인제지방의 방언 연구」, 『관동향토문화연구』 5, 춘천교육대학 관동향토문화연구소, 1987.  
 \_\_\_\_\_, 「양구지방의 방언 연구」, 『관동향토문화연구』 6, 춘천교육대학 관동향토문화연구소, 1988.  
 \_\_\_\_\_, 「인제지방의 방언 연구」, 『논문집』 28, 춘천교육대학, 1988.

### 2. 기타 자료

- 가톨릭관동대학교 홈페이지 <https://www.cku.ac.kr>  
 강릉원주대학교 홈페이지 <https://www.gwnu.ac.kr>  
 강원대학교 홈페이지 <https://www.kangwon.ac.kr>  
 한림대학교 홈페이지 <https://www.hallym.ac.kr>

---

**Abstract****Current Status and Future Tasks of Research  
on Dialects in Central and Northern Yeongseo,  
Gangwon-do**

Park, Jeong-Mo | Sun Moon University

This study highlights the need to reexamine the dialects of central and northern Yeongseo in Gangwon-do, particularly those spoken in Chuncheon, Hwacheon, Inje, Yanggu, and Cheorwon. While previous dialect research has focused primarily on the Yeongdong region because of its distinct tonal features, these Yeongseo areas have remained relatively understudied and are often simplistically classified as sub-varieties of the Gyeonggi dialect. In fact, they constitute a transitional zone marked by distinctive phonological and lexical features. Existing data are largely limited to individual surveys conducted in the 1980s and 1990s and a small number of recent reports, leaving a substantial research gap amid rapid linguistic change. Given population aging, regional decline, and the decreasing number of native speakers, urgent documentation is required. Future research should adopt micro-level fieldwork based on natural and living zones, integrate regional audiovisual materials, and establish a sustainable research infrastructure led by regional hub universities.

**Keywords** Central and Northern Yeongseo Dialect of Gangwon-do, Current Status of Dialect Research, Dialectal Differentiation, Transitional Zone. Dialect Survey and Preservation

---